

의안번호	2210496
의 퇴 인	한지아의원
회 답 일	2025.7.10.
추 계 번호	25D2872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의무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을 2년으로 단축할 경우, 추가로 충원해야 하는 의무장교 388명에 대한 군사훈련·교육에 소요되는 추가재정소요는 2028년부터 2032년까지 101억 1,500만원(연평균 20억 2,300만원)으로 추계됨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8~2032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8	2029	2030	2031	2032	합계	연평균
추가재정소요	1,936	1,979	2,022	2,066	2,112	10,115	2,023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7조제1항제4호 (의무복무기간)	「병역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의무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을 현행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함	의무규정

III.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7조제1항제4호 (의무복무기간)	○	-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개정안에 따라 의무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을 현행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할 경우, 의무장교 정원을 유지하기 위해 신규충원 인력이 증가함에 따라 교육훈련에 소요되는 비용이 증가하여 추가재정소요 발생
- 추계에서는 2025년 기준 의무장교의 군사훈련·교육에 소요되는 비용 단가에 국회예산정책처가 전망한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적용¹⁾)
- 개정안 부칙은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법 시행 이후 의무장교로 편입되는 사람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8년부터 2032년까지로 함
 - 개정안 시행일을 2026년 초로 가정할 경우, 의무장교는 매년 3월에 입대하여 6주 교육 후 임관된다는 점을 고려할 경우, 개정안에 따라 의무장교 임관 후 2년의 의무복무기간을 마치고 최초로 전역하게 되는 시점은 2028년 4월로 예상됨
 - 개정안 부칙은 개정안 시행 당시 복무 중인 의무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은 개정규정과 병력 수급 사정 등을 고려하여 단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 의무장교 임용대상자의 입대가 매년 3월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과 편입시기별 구체적인 단축기간은 국방부장관이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추계에서는 의무장교 의무복무기간의 단계적인 단축은 고려하지 않음²⁾)

1)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소비자물가상승률(2025.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2032
소비자물가상승률(%)	1.9	2.0	2.0	2.0	2.0	2.0	2.0	2.0

- 2) 현재 매년 3월 1회에 한하여 의무장교가 입대하고 있어, 2026년부터 개정안을 시행할 경우, 2028년에 2025년 입대자와 2026년 입대자가 동시에 전역하도록 되어 있어 2028년에는 의무장교 정원을 충원하기 위해 의무장교 임관자의 2배인 1,550명을 충원하고, 2029년에는 775명을 충원하는 등 격년마다 충원해야 하는 인력이 변동이 심화되는 문제가 있음. 따라서 개정안의 시행과정에서 의무장교 의무복무기간의 단계적 단축과 관련하여 보다 세밀한 계획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나, 본 추계에서는 이와 같은 사항은 고려하지 않고 의무복무기간 단축이 완료된 것으로 가정하고 장기적으로 매년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는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가. 의무장교의 의무복무기간 단축(안 제7조제1항제4호)

- 개정안에 따라 의무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을 현행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할 경우, 의무장교의 정원 유지를 위해 매년 신규충원해야 하는 인력이 증가하며, 그에 따른 교육훈련에 소요되는 비용이 증가
- 최근 5년간 국방부는 매년 의무장교를 평균 775명씩 신규충원하였으나, 의무복무기간이 3년에서 2년으로 단축될 경우 매년 신규충원해야 하는 의무장교는 775명보다 50% 확대한 1,163명으로 매년 388명씩 추가로 신규충원해야 함

[표 2] 의무장교 정원 및 신규충원 현황

(단위: 명)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평균
정원	2,468	2,452	2,452	2,471	2,475	2,464
신규충원	834	715	771	837	716	775

자료: 국방부

- 의무장교에 대한 군사훈련·교육은 6주간 실시되고 있으며, 2025년 예산 기준 의무장교 1인당 군사훈련·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467만 6,000원임

[표 3] 의무장교 1인당 군사훈련·교육 소요비용(2025년 예산 기준)

(단위: 천원)

구분	급여	급식	피복	합계
단가	2,310	546	1,820	4,676

주: 의무장교 임관 예정자의 급여는 사관생도에 준하여 지급되고 있으며, 교보재 비용은 포함하지 않음
자료: 국방부

- 추계기간의 의무장교 군사훈련·교육시 지급되는 급여는 최근 3년간 평균 공무원임금상승률 2.4%를 적용하고, 급식 및 피복비용은 국회예산정책처가 전망한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적용하여 추정

[표 4] 의무장교 1인당 군사훈련·교육 소요비용 추정: 2028~2032년

(단위: 천원)

구분	2028	2029	2030	2031	2032
급여	2,480	2,540	2,601	2,663	2,727
급식 및 피복	2,510	2,560	2,611	2,663	2,716
합계	4,990	5,100	5,212	5,326	5,443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개정안에 따라 추가로 충원해야 하는 의무장교 수에 의무장교 1인당 군사훈련·교육 소요비용을 곱하여 산정한 추가재정소요는 아래 표와 같음

[표 5] 추가 충원 의무장교 군사훈련·교육에 소요되는 추가재정소요: 2028~2032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8	2029	2030	2031	2032	합계	연평균
급여	962	986	1,009	1,033	1,058	5,048	1,010
급식 및 피복	974	993	1,013	1,033	1,054	5,067	1,013
합계	1,936	1,979	2,022	2,066	2,112	10,115	2,023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나. 추계결과

- 개정안에 따라 의무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을 2년으로 단축할 경우, 추가로 충원해야 하는 의무장교 388명에 대한 군사훈련·교육에 소요되는 추가재정소요는 2028년부터 2032년까지 101억 1,500만원(연평균 20억 2,300만원)으로 추계됨

[표 6]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2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8	2029	2030	2031	2032	합계	연평균
추가재정소요	1,936	1,979	2,022	2,066	2,112	10,115	2,023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V. 부대의견

- 본 추계는 의무장교의 의무복무기간 단축 시, 매년 충원해야 하는 의무장교 388명의 군사훈련·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추계한 결과로, 향후 신규충원 규모에 따라 실제 추가재정소요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행정비용추계과	전수연	김안나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전수연	02-6788-4667	syjeon@assembly.go.kr